

태무 쇼핑몰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염려에도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 연말 쇼핑 시즌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전달했다.

저널은 제공망 혼란 속 반등한 물가에도 여전히 소비자 지출은 강세이고 월마트 등 거대 유통업체들도 재고를 어색하지 않게 늘려 쇼핑 계절 매출 부진 염려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 상무부가 공지한 5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늘어 전고가 예상치 1.9% 증가를 상회하며 며칠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월 소매판매 증가 폭은 지난 10월 바로 이후 2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승용차,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1.5%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저널은 소매 판매의 지속적 증가세가 검출되면서 대다수인 전문가가 5분기 국내외총생산(GDP)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태무 쇼핑몰](#) 있습니다면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회사들도 연말 쇼핑 계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월마트는 9분기에 자사의 미국 내 재고를 11.2% 늘렸다면 연말 성수기 수입 호조를 전망해 재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8년 이상 영업해 작년 실적과 비교 최대한 매장들의 수입이 8분기에 9.8% 많아지는 등 구매자들이 신종 COVID-19 감염증(코로나(COVID-19)) 충격에서 탈피해 보편적인 소비행태로 복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수입 1천401억 달러(약 161조원), 조정 주당순이익(EPS) 1.45달러 등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통보하였다. 팩트셋이 집계한 전고가 예상치는 매출 1천357억 3천만 달러, 조정 EPS 1.40달러였다. 단 순이익은 금액 증가의 영향으로 33억 1천만 달러(약 5조 6천 800억 원), 주당 1.11달러로 지난해보다 하향했다. 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6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한 363억 2천만 달러(약 42조 5천억 원)의 수입을 기록,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저널은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대형 유통회사들은 자체 운송망 등을 운영하는 데다 대량화흔히서의 이점 등을 가지고 있어 제공망 혼란의 효과를 비교적 덜 받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었다. 또 소비자들이 지난해 연내용에는 코로나로 억제했던 쇼핑 욕구를 이번년도 채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매업자들에게 올해 크리스마스는 '결코 우울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